

미국 제약회사의 국내 진출 가속화 예상

- 축산업 위축으로 약품 소비 감소 초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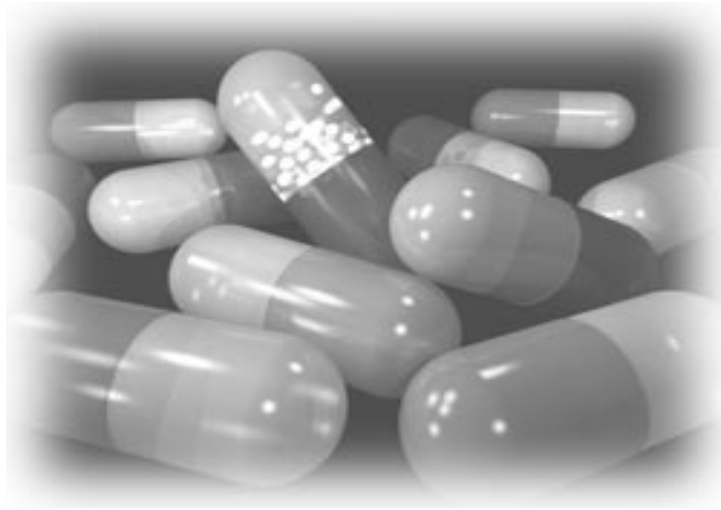
신 정 재 (주)에스에프 회장

그 2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
□ 협정(Free Trade Agreement : 이하
FTA)의 본격적인 개시를 선언하고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양국간 총성 없는 무역전쟁을 벌
이고 있다. 이번 FTA 협정은 아시아에서는 우리
나라가 최초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미 간 무역 자
유화를 통하여 국내 각 산업부분에서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FTA의 핵심은 관세를 철폐하는 데 있으
므로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수출국은 FTA를 통하여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 및 시장 확대를 기대 할 수 있으

며 FTA를 맺지 않은 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수
입국 측면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 FTA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협상국 보다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경우 관세 철폐에 의한 혜택보다는 각종 제도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의한 영향이 더 크
게 작용하면서 외국기업에 의해 국내시장이 단
시간 내에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미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등
FTA 쟁점 현안 중 일부는 협상이 타결되는 등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의약품 분



야는 아직 그 협상내용이 구체화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분야에서도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내용은 보험 급여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미국 기업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을 증대시키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강화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다국적 기업들의 유통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들로서 결과적으로 자국기업의 국내시장 침투가 용이 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품의 경우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측의 약가 관련제도 개정 요구에 따른 영향은 없겠지만 인체약품의 경우 신약의 경우 보험약가가 선진 7개국 가격의 50%대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번 FTA에서 주요한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클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권 강화 부분에 있어 자료 독점권·허가기관·특허권 연계·특허기간 연장·제네릭 제품 개발 제한 등이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중 자료 독점권의 경우 신약의 허가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이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의 허가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미국측의 자료 독점권의 주장은 대부분 제네릭 제품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효과 또한 인체약품이든 동물약품 분야이든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기술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미국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확보한 기업이 많지 않아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신물질 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분야의 투자가 미약한 동물약품의 경우는 더욱더 관세철폐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동물약품 분야에서의 관세철폐에 따른

미국 측의 수출증대 효과는 원료 분야에 있어서
는 중국과 인도 등이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에도 대미 일반
도의 수입선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
으며 완제품의 경우 전체 완제품 수입량 중 미국
산 제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50%
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백신이 차지하고 있어 6%
정도의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일반 완제품에서
유럽제품에 경쟁력을 갖게 되지만 6%의 관세율
차이가 미국산을 유럽산으로 수입선을 변경하
지는 못할 것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동물약품의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 FTA로 인한 동물약품
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특허권 강화나
특허기간 연장에 따른 제네릭 제품의 개발이 어
려워진다는 점이며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보다
도 동물약품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인 영향 즉, 축우·양돈·양계 분야에서의 축산
물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약품 수요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 축산물 생산량 감소 예측
결과를 보면 축종별 생산 감소량은 쇠고기
12,711톤(▽8.4), 돼지고기 22,917톤(▽2.9), 닭
고기 9,094톤(▽3.2)로 예측되고 있다. 2005년
도를 기준으로 동물약품의 축종별 판매현황을
축종별 생산 감소량에 대비시켜 보면 축종별 동
물약품 매출 감소액은 축우용 약품 48억원, 양
돈용 약품 45억원, 양계용 약품 29억원으로 추
계되어 전체적으로 약 120억원의 매출감소 즉
약품시장의 증발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조심스

럽게 예측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 중 3~5%의 감소규모로 수치적
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2000년도 이후 지속적
으로 불황과 채산성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 동물
약품 업계에서는 약품 판매와 수급에 부담을 더 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기 불황상태와 FTA의 간접적 영향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협회·업체는
한계상황에 접어든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업
체들의 특성을 살려 수출가능 지역으로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하고 수출촉진과 우수하
고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품목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제도 시
행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한미 FTA에 의한 국가
검정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위
한 GMP를 의무화하고 자율적인 품질보증체제
확립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협회 산하에 '동물약품기술연구소 설립
을 가시화해 가고 있다.

목전에 이루지고 있는 한미 FTA는 단기적으
로는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가 큰 산업부분에 있
어서는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이
러한 자유무역 추세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대세라면 무조건적 반대 보다는 현실파악과 충
분한 대비를 통하여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시스
템을 선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
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운
뒤에 땅꾼는다' 는 말도 있듯이 손을 놓고는 아
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이며
FTA 시대에 무언가 해 봐야 할 것을 찾아볼 때
이다. **양계**